

순천 사회단체 “여순 진상보고서기획단 재구성을”

순천유족회 등 10개단체 주장 “편파적 인사들 밀실서 선정”

순천지역 사회단체들이 여수·순천10·19사건의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기획단)의 재구성을 촉구했다.

25일 여순사건순천유족회와 순천시체육회,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이통장협의회 등 10개 사회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21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이념 갈등으로 몰아가려는 것 아니냐”면서 “기획단의 구성이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2021년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른 위원회 구성은 특별법 법안대로 정치적 중립 인사로 구성됐으나 이번 기획단 단원 선정은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인사들로 밀실에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을 규명할 학계 및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올바른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유족과 국민들을 무시하고 ‘이념’이라는 울가미에 가두려는 속셈으로 보인다”고 반발했다.

단체들은 “포함된 법률가도 국가폭력이나 민간희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로 다시 선정하고,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 당시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편파적인 방향으로 규정되지 않도록 개입하지 말고 위원회에 맡겨달라”고 요구했다.

순천유족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열차 안에서 유족들을 만나 해방 후 국가 공권력에 의해 호남인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안긴 점에 공감하며 올바른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유족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



순천지역 사회단체들이 여수·순천10·19사건의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기획단)의 재구성을 촉구했다. 순천유족회 제공

있다”고 말했다.

유족회는 “정부는 더 이상을 국민을 이념으로 나눠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지 말

며 이번 밀실 선정에 대해 유족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국민통합에 솔선수범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여수국가산단 가로환경 정비 8000만원 투입 연 2회 실시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쾌적한 여수국가산단 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1월4일까지 ‘하반기 가로환경 정비 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여수국가산단 인근 도로변과 주차장 등에는 생활쓰레기부터 대형폐기물까지 각종 쓰레기가 방치돼 국가산단의 이미지를 저해하고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시는 지난해 여수국가산단공장장협의회와 여수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 등과 함께 ‘여수국가산단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8000만 원의 사업비를 조성, 연 2회 산단 가로환경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가 내년 1월4일까지 ‘하반기 가로환경 정비 사업’을 실시한다. 여수시 제공

지역 민주열사 재조명 토론회 여수시의회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지난 22일 소회의실에서 ‘여수지역 민주열사 재조명 및 선양사업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토론회는 강현태, 이미경, 김철민 의원 공동 주최로 시의원 및 시 정부 관계자, 민주열사 유족, 시민단체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김철민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 앞서 두 시민단체 관계자가 민주열사 재조명과 선양사업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광주전남추모연대 김순 집행위원장은 “광주전남 민주열사의 추모 사업은 대부분 비법인 단체가 정부·지자체의 재정적 지원 없이 진행 중”이라며 선양사업의 필요성과 정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수YMCA 김대희 사무총장은 여수YMCA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사단법인 ‘여수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설립을 추진 중임을 밝혔다. 김 총장은 ‘여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라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 민주열사 선양사업 활성화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주제발표 후에는 세 명의 토론자가 해당 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강현태 의회운영위원장은 “민주열사를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는 데 시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장흥군 ‘하루 더 머무는’ 관광도시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본격화 3개 사업 614억원… 10년간 추진

장흥군 ‘정남진 은하수로드’ 관광명소 조성사업 외 2건이 문화체육관광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에 반영됐다.

25일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의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가 추진하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은 K-컬처, K-관광을 활용해 하루 더 머무는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 구축’을 위한 광역관광 개발계획이다.

장흥군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 반영을 위해 전남도

와 적극 협력해 왔다. 그 결과 제출한 10개 사업 중 최종 3개 사업, 총 614억원(국비 307, 도비 92, 군비 215)을 확보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정남진 은하수로드 관광명소 조성(1단계, 171억원) △명상치유관광루트 관광명소 조성(2단계, 181억원) △남해안 항공관광 복합터미널 구축(2단계, 262억원) 사업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남부권 광역관광 1단계 선도사업인 ‘정남진 은하수로드 관광명소 조성’은 본예산 8억원을 확보했다. 사업계획수립, 설계공모, 행정절차 등을 추진하여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남서권, 남중권, 남동권, 3개 권역 연계협력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남부권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관광 개발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영·호남 5개 시도, 40개 시군이 참여하는 대형 관광개발 사업이다. 총 3조원 규모로, 내년부터 오는 2033년까지 10년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김성 장흥군수는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있는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 조성을 위해 남서권 지역간 연계 및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성공적인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고흥군, 전남도 농수산물식품 수출 경진대회 대상

우수 시·군 첫 경진대회

고흥군이 전남도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한 농수산물식품 수출 우수 시·군 첫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25일 고흥군에 따르면 전남도는 ‘제1회 농수산물식품 수출 우수 시·군 경진대회’를 전남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개최하고 총 6개 우수 시·군을 선정해 도지사 기관 표창을 수여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진대회는 도·시·군·수출기업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농수산물식품 수

출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정례화된다.

올해 첫 대회는 9월 말 기준 지난 1년간의 농수산물 수출실적과 수출액 증가율 등에 대한 1차 정량평가와 주요 수출 지원 시책, 해외 시장 개척 노력 등에 대한 2차 정성평가를 거쳐 최종 6개 시·군을 선발했다.

시·군의 농수산물식품 수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식품기업의 수출 참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단순한 수출액 기준 평가가 아닌 전년 대비 수출액 증가율과 해당

지자체의 수출 노력 등을 위주로 평가했다.

대상은 신시장 개척을 통해 체코 등 동유럽 시장 진출과 프랑스 고급 식재료 페스티벌 참가를 통한 유자 세계화 노력으로 수출 전략품목화에 성공한 고흥군이 수상했다.

나주시와 완도군은 최우수상, 해남군과 장흥군은 우수상, 담양군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전남도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수출 지원 우수시책을 내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에 따른 대체 지원사업으로 적극 활용토록 시·군과 공유하고 사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양기람 기자

순천시,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전남 시·군 중 유일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올해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전남 시·군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과 포상금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이용실적, 사례관리, 부당이득금 징수 등 의료급여사업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023년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 18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는데, 전남에서는 순천시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시는 사례관리 및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장기 입원환자의 퇴원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점과 신규수급자를 위한 제도교육 등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순천=배서준 기자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찾기 선포 광양시 “제자리 찾아줘야”

광양시는 지난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양시 고향사랑기부제 제1호 금급사업으로 선정된 ‘국보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제자리 찾기’ 사업 선포식을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사회단체장 및 광양시민 1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선포식에서는 국보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의 문화재적 가치와 중요성을 온 시민들에게 알렸다.

시민과 사회단체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내년부터 범시민 서명운동과 홍보 캠페인 전개, 세미나 개최, 석등 제자리찾기 시굴조사 등으로 사회단체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제자리 찾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양=안영준 기자

순천시, 신청사 건립 ‘첫 삽’ 2025년 말 입주 목표

순천시가 22일 신청사 건립 부지에서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순천시 이날 신청사 건립 부지에서 노관규 시장과 정병희 순천시의회회장, 지역 국회의원, 기관·단체장,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하고 성공적인 신청사 건립을 기원하는 기공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순천시 신청사는 현 청사를 포함해 동측으로 확장한 2만 6758㎡ 부지에 지하 1층·지상 6층, 연면적 4만 7048㎡ 규모로 건립된다.

올해 말 착공한 뒤 2025년 말 입주, 2026년 11월 총괄 준공을 목표로 달려갈 계획이다.

신청사는 기존 청사와 달리 본청과 의회 청사를 분리해 의회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옥외에는 중앙공원과 더불어 건물 사이 곳곳에 크고 작은 6개의 중정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항상 열려 있는 쉼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사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2165억원으로, 청사 신축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약 1940억 원의 신청사 건립기금을 조성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의 새 랜드마크로 신청사와 문화스테이션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